천국가기 부자되기 양자택일

(마태복음 19:16~30)

20.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21.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23.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24.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25.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26.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천국가기 부자되기 양자택일>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천국가기 부자되기 양자택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양자택일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자이면서 천국에 가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볼일을 보러 시내에 나갔다가 특이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작은 가게 앞에 개업을 축하하는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분의 리본에 있는 글귀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대박 나서 잠자다 돈벼락 맞아라!"고 쓰여 있는데 웃기면서도 요즘 세태를 잘 반영한 노골적인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히 말해 부자 되라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 빗대어 생각해보자면 "천국가지 마세요."라고 쓴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24절을 보면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바늘귀가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말 그대로 바늘구멍이라고 이해하는 학자들이 있는가하면 예루살렘 성의 작은 문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밤에 성문을 닫고 난 후에 출입할 수 있는 작은 문이 있는데 무척 좁아서 사람도 기어서만 통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예수님이 생각하신 바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낙타가 통과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실이 들어가는 바늘의 귀라고 생각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또한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제시되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낮아질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재물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신앙적으로 개업인사나 새해인사를 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부자 되어서 지옥가지 마세요." 혹은 "새해에는 절대 부자 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천국은 죽은 다음에나 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든지 예수님을 따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낮아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이 세상의 가치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는 어른처럼 높아진 마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신앙인들에게 부자는 부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필이면 부자가 되었어?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라는 말이 나와야 신앙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자에 대한 선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마귀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자는 재물로 인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마음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어린 아이와 같이 마음을 낮출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재물이라는 세상의 가치를 마음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에 대해 내심 불편함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다만 먼저 확신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느끼는 대부분의 부담감은 잘 살아보겠다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잘 살아보겠다는 마음은 곧 부자에 대한 선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마음이 자유로워야지 재물에 묶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부자 청년은 결국 재물이 많음으로 인해 예수님을 따르기를 포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곧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일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같이 이 세상 가치가 없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로만 기뻐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과 본문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였으나 따를 수 없었던 세 명의 인물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19~20절을 보면 "한 서기관이 나아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고 하셨습니다.
서기관은 이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바랐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가치를 많이 갖겠다

는 꿈과 비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확고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목표로 하는 지점에 순조롭게 도달하기 위해 예수님을 앞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서기관과는 다르게 영생에 대한 선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청년은 세상 사람들이 열망하는 재물이라는 가치를 많이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서기관이 높은 상태로 가기를 원했다면 부자 청년은 높은 상태에서 내려가지 않는 방법으로써 영생을 선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존과 유지를 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동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의 방식입니다. 부자 청년이 떠나간 뒤에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놀라 고민하였습니다. 27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는 어부였고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제자들은 이 모든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좇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행색은 초라하였지만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병이어로 오천 명을 먹이고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 위를 걷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은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어 하는 제자들의 마음에 기폭제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 세상에서 높아지는 핑크빛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헛된 기대는 이후에 나타날 참혹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완전히 꺾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이를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신 예수님을 따라 마음을 하늘로 보내고 머무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것은 세상에 묶인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 가치들을 붙잡으면 그것이 밧줄이 되고 쇠사슬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자유롭게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내 아버지로 가질 수 있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4절에서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자는 재물이 방해가 되어서 하나님만으로 기쁘고 만족하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없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자 25절에서 제자들은 놀라며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자들이 놀랐던 이유는 이를 마음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부자가 재물을 지키고 또 그 재물을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기도 합니다. "내가 번 돈을 써서 즐거워하겠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왕 사는 거 부자로 살아야지. 굳이 가난하기를 고집할 필요가 있습니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졌던 당시의 제자들의 마음에도 이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세상에 부자는 적고 가난한 사람은 많습니다. 제자들도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의 반응은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서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군요."라고 무관심에 가까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몹시 놀랍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이미 재물에 묶여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자는 이미 가진 재물에 마음이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아직 갖지 못한 재물에 마음이 묶입니다. 마음이 묶였다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당장은 부자가 아니지만 마음만은 이미 부자와 같은 상태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26절에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부자든 마음만 부자든 재물에 묶인 사람들을 천국으로 끌고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본다면 "너희가 부자든 가난하든 재물을 좋아하는 것을 알았다.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마음이 죽었다는 자아의식을 가져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부자 청년처럼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 청년에게 그러한 요청을 하셨던 이유는 청년이 그 일을 할 수 없음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올 때만 해도 자신만만했습니다. 20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라고 대답한 것에서 그 자신감이 드러납니다. 이 청년에게는 선한 일을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전제를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선한 일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으니 그 믿음대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청년은 예수님께 반박할 수도 없었고 재

물을 팔 마음을 가지지도 못한 채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난 사례는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에서 유무상통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부자가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만 십자가 사건을 통해 마음을 하나님께 보내지 않고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만 재물에 붙잡힌 마음을 죽은 것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했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뚫어지게 바라봄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자아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재물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 아파트를 전세로 바꿔서 차액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땅이든 아파트든 연금이든 보험금이든 저축이든 하나도 손 댈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세상에 대해 죽은 자의 자아의식을 가질 때에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입니다. 다만 십자가를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의 자아의식을 갖게 되면 재물이 마음에서 떨어져나가게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자에게 재물이 소중하듯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이삭이 소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을 증명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삭조차 아까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재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지기 위해서는 재물도 아깝지 않다는 것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 재물을 누리는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고 싶다면 부자의 마음을 버려야만 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면 부자의 마음입니다. 천국에 못 갑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있는 돈을 내 마음대로 쓰려고 합니다. 천국에 못 갑니다. 돈이 없는 데도 마음만 부자인 사람은 억울하기 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세상에서 잘 살기라도 했지만 돈도 없으면서 지옥에까지 가야 한다면 억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돈이 없다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기 좋은 환경에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불쌍한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기에 너무도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재물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예수님께서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재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에 대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청년은 선행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청년이 지킬 수 없는 선행으로써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한편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17~19절을 보면 사람에 대한 계명과 이웃 사랑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은 자신이 이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대답합니다. 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하필이면 사람에 대한 계명만을 언급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부자 청년은 정말로 이 계명들을 다 지킨 것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 예수님께서 청년의 말을 인정하시고 다른 문제로써 재물을 언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은 계명의 문자를 따라서 행동을 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율법정신에 입각한 행동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언급도 하지 않으신 점으로부터 드러납니다.
이전 설교에서 십계명은 하나의 계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계명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가 십계명의 전부입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이 지켜질 때에 나머지 계명들은 저절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의 아홉 계명을 청진기 삼아서 나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 계명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다른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재물이라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던 부자 청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들은 언급하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청년은 십계명을 다 지키고 산다고 자신하고 있었기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마음을 가진 적은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란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번 돈으로 즐겁게 산다는데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없다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과 율법정신에 입각한 다른 신의 정의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면 기쁘고 만족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대상이 바로 다른 신입니다. 첫 번째 계명에서 이러한 의미는 명백하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부자 청년도 제자들도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모로써 자녀의 형통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면 그것이 다른 신이 된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섬기는 신이나 우상들은 다른 신의 범주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에 빠졌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알이 풍요와 다산을 주관한다고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이 좋아한 것은 바알 자체가 아니라 풍요와 다산이었습니다. 바알은 풍요와 다산을 성취하게 하는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우상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부자 청년은 실제로는 계명을 전혀 지키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문자적인 계명을 수행했던 이유도 재물이라는 다른 신을 섬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한 목적도 재물을 영원토록 보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재물을 보존하는 최고의 방식이 영생 얻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 여긴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정말로 관심이 있었던 것은 영생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가장 먼저 가지고 싶어 한다면 영생은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지만 너무도 많은 오해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본연의 모습을 잃은 이유도 바로 이 말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돈이나 건강이나 자녀의 형통과 성공보다도 더 좋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 실제로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마음에서 얼마든지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습니다. 재물과 권력과 건강과 자녀의 형통과 승진 등을 섬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모든 세상의 가치들이 다른 신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이 지금 기독교를 내용물 없는 빈 깡통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좋아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유일한 그 하나님께로 도달하게 하는 구원의 길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에는 반드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좋아함이 전제되고 보충되어야만 합니다.
이 전제가 없다면 부자 청년과 똑같이 예수님 따르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땅에 있는 세상 가치의 쇠사슬을 십자가로 끊어버리고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복음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도 여전히 이 세상 가치의 쇠사슬에 붙잡혀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반드시 보충되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도달하는 구원의 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셔서 언제 어디서든 십자가를 뚜렷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으로써 부자 청년은 도달할 수 없었던 구원과 영생에 기어코 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구원과 영생의 물감으로 우리의 삶을 그려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